

것을 보면 古今의 愛陶家の 心情에 다를바가 없는 것을 알겠다. 正祖代의 文人이며, 愛陶家の 한 사람인 蕙庭 金鑣의 文集蕙庭遺稿에 나오는 衆器五絶四十二首中 身邊의 白磁硯滴을 노래한 詩에 「甕院甲燔 薺齋言 純白好 蟾蜍靜似銀 上品權家造」云의 絶句가 있는데 이 內容을 보면 아마 甕院權直長이 監造한 分院白磁를 읊은 듯해서 아마도 이 우직한 母子硯滴과는 지체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나는 이 시골 가마의 育심없는 솜씨에 한수를 더 높고만 싶다. 李教授가 이 두꺼비硯滴을 入手한 것은 먼 옛날 學生時節이라고 하며 東京에서 蘓山龍泉堂主人이 權域의 젊은 선비에게 格別한 配意로서 勸해준 것이라 한다. 그 當時 李教授는 거의 두달치의 學費를 이 두꺼비에 投資했다고 하니 이만저만 소중한 愛藏品이 아닌것을 짐작하고도 남겠다.

謙齋筆 漢陽北部八景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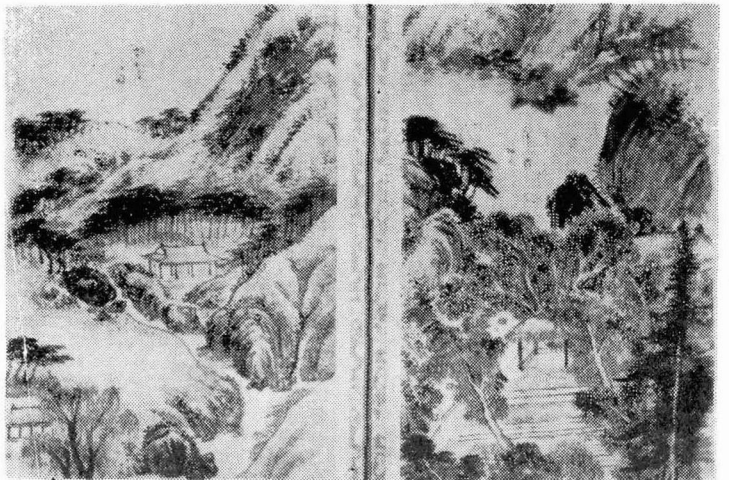
孟 仁 在

北岳과 仁王山은 지금도 매우 깨끗하며 傳來意識이 아니더라도 오래 본 사람이면 그 姿態를 동경할 수 있을 것이다. 王朝時代에는 이를 山의 많은 골짜기와 등성이에 재미있는 이름을 부치고 亭榭를 지어 讀書·閑遊하였음이 적지 아니 알려져 있으며 이들을 對象으로 한 畫人들의 墨蹟도 적지 않은 듯하다. 北部八景이라고 부른것은 그림이 八幅인 때문인 듯도 하지만 謙齋 스스로 中國이나 國內各地의 八景에 대한 歷史的慣習을 따라 그렇게 그린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러한 例는 謙齋의 또 하나의 八景圖인 壯洞八景(國立博物館所藏)에서도 볼 수 있다. 이들 두 八景 가운데의 二·三景은 同名同景이고 筆法特히 布置가 거의 똑같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로써 北部에는 더욱 細分된 八景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兩者는 다 紙本에 淡彩한 것이고 北部八景圖는 五九·五cm X三八·二cm 크기의 縱長幅(八曲屏)이며 後者壯洞八景圖는 一邊約三〇

cm의 帖本이다.

二

淸風溪는 白雲莊 옆 골짜기였던 것 같으며 八景中의 力作일 것이다. 墨彩에 若干의 淡靑彩를 섞었으며 검은 岩壁들이 左右에서 中心下部로 斜向하여 쏠려 있기 때문에 深遠形이 깊숙한 溪谷을 이루고 있다. 육어진 숲속에는 넓은 三段의 石壇위에 한 채의 茅亭(四모정)이 있고 그 奧部를 가린 白雲위에 「淸風溪謙齋」라 墨書하고



그 밑에는 「鄭」[敦]陰文方印 一顆가 찍혀 있다. 岩壁의 검은 集線皴는 땅서림 없는 줄기찬 反覆으로 磐石의 壯重을 얻었고 그 가운데 白雲을 서리게 하여 塵外의 仙境처럼 만들어 버린 것은 強한 主觀속에서 開花한 老練하고 獨特한 技法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老練한 處理能力은 다른 七景, 壯洞 八景 또는 仁王霽色圖 등에서 거의 똑같이 넘쳐흐르고 있다. 壯洞八景中의 淸風溪에는 茅亭을 中心으로 二棟의 큰 瓦家가 그려져 있는데 이 一聯의 建物들은 아마 當代名士의 第宅이 있을 것이다. ① 聽松堂은 알려진 바와같이 中宗代 成守琮의 書室이었으며 그 터는 淸雲中學校의 뒤 언덕에 있다. 壯洞八景中에도 이와 거의 똑같은 聽松堂圖가 있으며 京城府史卷一에 紹介된 것까지 三幅(또는 그以上)의 聽松堂

圖가 傳世되었다고 할 수가 있다. ② 山上部에 「聽松堂謙齋」라 墨書가 있고 「鄭」散의 陰文方印이 찍혀 있다. 聽松堂은 前面三間의 瓦家였음을 그림에서 볼 수 있다. 京城府史에서는 書室의 方向이 反對일뿐 세 幅의 布置技法은 거의 똑 같다. 똑같은 風景을 어떤 世代에 兄弟와 같이 크게 또는 작게 되풀이해 그려낸 謙齋의 誠實性을 보여 주는 듯한 그림이다. 洗心臺는 淸雲國民學校附近의 仁王山 東麓인 듯 하다. ③ 臺下에는 亭樹가 있었던 듯하며 그림의 臺는 白雲에 둘러 쌓여 있다. 岩壁의 集線皴은 매우 強烈하며 山上에는 城廓의 一部가 그려져 있다. 城廓上部에 「洗心臺謙齋」라 墨書하고 그림에 前者에서와 똑같은 「鄭」「散」二印이 찍혀 있다. 「水墨淋漓吐雲煙滿堂動色望翠巖」(蒼霞集)이란 말은 仁王齋色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알맞는 表現일 것이다.

白岳山圖는 東南方에서 꽤 接近해 그린 것 같으며 右上部에 「白岳山謙齋」라 墨書하고 前者同様の 二印을 찍고 있다. 奔放한 岩皴은 亂麻를 聯想케 한다. 線皴의 極致이며 同時에 線으로 構成된 돌의 極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一般의 人斧劈皴은 쓰지 않았고 概念이 아닌 매우 生生한 돌이 그려져 있다.

靑霞洞은 어디였는지 分明치 않으나 그림에는 꽤 宏壯한 亭樹茅屋이 그려져 있으며 이것도 어느 名士의 第宅庭園이 아니었는지 모르겠다. 上部에는 「靑霞洞謙齋」의 墨書와 前者同様の 二印이 있다.

水聲洞은 舊尹德榮家 後左의 樓下洞골짜기 일 것이며 오늘날도 매우 조용한 곳이다. 溪合된 斷崖는 一筆之下에 暈染하여 岩盤의 隆起를 나타냈고 그 大膽한은 全畫面을 制壓하는 듯한 印象을 준다. 이 部分은 西洋繪畫에서 볼 수 있는 立體表現과 매우 恰似하다. 洗心臺圖에서와 같은 城壁이 같은 位置에 나타나 있고 款識은 「水聲洞」以下가 前者와 같다.

仁王山圖는 치마바위를 中心으로 이 산을 東南方에서 寫生한 듯 하다. 瓦家가 있는 前景의 地形은 弼雲臺附近을 髣髴케 하며 仁王齋色圖와 매우 비슷한 部分을 나타내고 있다. 돌들등글한 이 산의 全貌가 諸誌을 느낄만큼 描寫되고 있다. 「仁王山」以下の 款識은 前者와 같다.

翠薇臺는 北岳의 西쪽 등성이의 어느 部分을 말하는 듯 하나 正確히 알 수가 없다. 前景은 넓은 空地(臺地?)이며 山 넘어 바른 편으로는 三角山 諸峯이 보인다. 「翠薇臺」以下の 款識은 前者와 같다.

三

北部八景圖의 概要는 이러하며 多作이던 謙齋의 많은 小品가운데서는 드물게 보는 大作이다. 仁王齋色이나 壯洞八景 등과 그는 繪畫觀으로 부더 오는 處理方法은 勿論 主題方面에서도 密接히 聯關되어 있으며 이들 여러 作品을 貫流하는 壯快하고 獨歩의 인 그의 繪畫觀에는 다시 한번은 이 번적 드인다. 書題에 따른 地名은 時日關係로 밝히지 못한 것이 있는데 이는 實踏에 期待할 수 밖에 없으며 또 畫中の 여러 瓦家들도 古記의 도움을 더욱 많이 받아야 具體的으로 言及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가지 仁王山에는 佛堂·庵子가 있었음이 確實한데 그들의 顛末을 畫中에서 說明할 수 있을런지는 매우 어려운 疑問이 아닐 수 없다.

註

- ① 在仁王山麓, 洞府幽邃, 泉石窈窕 可以遊賞(東國輿地備考)
- 金尙容第 在□□坊彰義洞淸風溪, 有太古亭, 凜然堂, 奉仙源畫像, 後孫居在近洞, 故世稱彰義洞金氏, 溪上有石刻曰, 大明日月 百世淸風八字○純廟翼宗, 嘗於春日臨辛(東國輿地備考)
- ② 成守琛第, 在白岳山下幽蘭洞, 松林中構書堂數間, 扁曰聽松堂(東國輿地備考) 幽蘭洞, 在北岳下, 崖石, 幽蘭洞三字, 此洞, 即成聽松舊居, 而且於賞花(漢京識略)
- ③ 京城花柳盛於三月, 南山之靈頭, 北岳之弼雲洗心二臺, 爲遊賞湊集所, 雲攢霧簇, 盡一月不衰, 洗心臺宜禧宮之後麓也(洙陽歲時記)
- 在仁王山下毓祥宮後, 石壁鐫洗心臺三字, 多花木, 春日宜於登眺——下略——(東國輿地備考)
- ④ 水聲洞, 在仁王山麓, 洞壑, 幽邃, 有泉石之勝, 最好, 暑月遊賞, 或云此洞, 匪懈堂舊基也, 有橋, 名麟麒橋(漢京識略)